



정책정보

4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4월에는 강풍·풍랑, 황사, 산불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그 결과를 대국민 홍보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사전 대비토록 하는 등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기상전망(4.1~4.30)

-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으며,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도 보이겠음.
- 중·하순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순에 남부지방, 하순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이 있겠음.

■ 재난발생 분석

• 강풍·풍랑

- 최근 10년간 6회의 강풍·풍랑으로 146억원 피해 발생(인명피해 없음)
- ※ '06. 4.17~21 기간 전국적인 강풍으로 건물·선박 등 100억원 피해발생

【 최근 10년('01~'10년)간 4월중 강풍·풍랑피해 발생현황 】

기간	원인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주요 피해지역	비고
합계	(6회)	0	14,551		
'05. 4.19~4.19	강풍	0	957	전북, 전남	
'06. 4.17~4.21	강풍	0	10,079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청, 전남·북, 경남·북	
'08. 4. 9~4. 9	강풍	0	673	전남	
'08. 4.23~4.27	강풍	0	198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09. 4.20~4.22	강풍	0	806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10. 4.28~4.28	풍랑	0	1,838	강원, 충남, 경북, 경남	

⇒ 강풍·풍랑 대비 상황 모니터링 강화, 예비특보 발표시부터 시설물 사전 보호조치

• 황 사

- 관측이래('73~'11년) 연평균 관측일수 5.6일 중 4월에 2.1일(37.5%)로 최다
- ※ 최근 10년('02~'11년) 연평균 관측일수 8.3일 중 3월에 3.0일(36.1%)로 최다

【 황사관측 일수 현황 】

구분	기간	관측일수(연평균)						비고
		합계	봄철			봄철 제외		
			소계	3월	4월		5월	
관측 이래	1973~2011	5.6	4.7	1.5	2.1	1.1	0.9	
구분	최근 10년	8.3	6.3	3	2.1	1.2	2	
	과거	4.6	4.2	1	2.2	1	0.4	

⇒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및 황사 관련 유관 기관 간 관측정보 공유 등 협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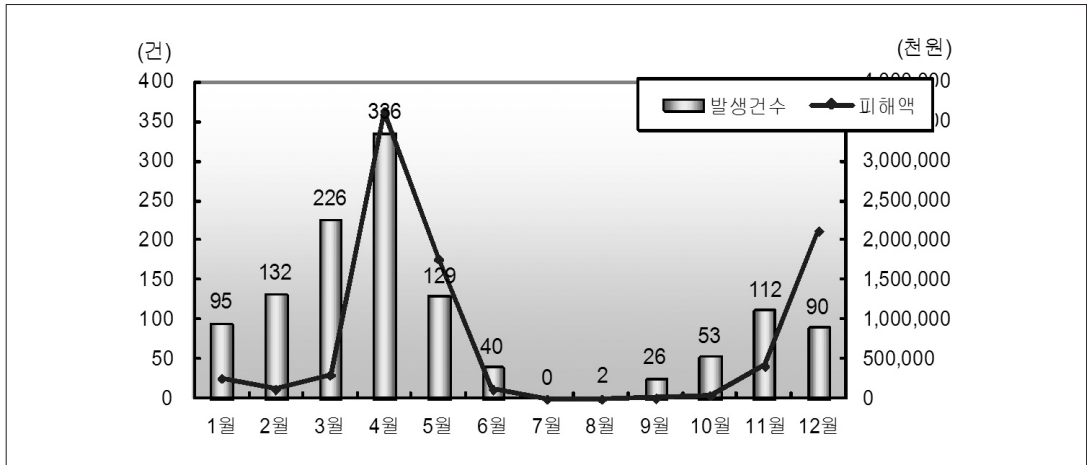
• 산 불

- 최근 3년('08~'10년)간 총 336건 발생, 산림 1,276ha 소실, 36억원 피해

※ 4월이 발생건수(336/1,241건, 27.1%)와 피해면적(1,276/1,904ha, 67.0%) 최다

※ 과거 강원 양양 산불('05.4.4, 산림 973ha · 이재민 420명), 동해안 산불(사망 2, 부상 15, 산림 23,138ha)이 4월에 발생한 사실 인식 · 경각심 고취 필요

【 최근 3년('08~'10년)간 산불 발생현황 - 산림청 】



⇒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및 영농 부산물 소각금지, 등산로 주변 인화물질 제거 및 입산객에 대한 화기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

방재정보광장

정책정보

1. 기상 전망

■ 4월 기상전망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일교차가 크겠고,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기도 하겠음.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순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순에는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일교차가 크겠으며,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아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기도 하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높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하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쌀쌀하고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4월 전망 요약

구분	기온	강수량
4월 상순	평년(9~12°C)보다 낮겠음	평년(13~50mm)과 비슷하겠음
4월 중순	평년(11~14°C)보다 높겠음	평년(19~59mm)보다 많겠음
4월 하순	평년(13~16°C)보다 낮겠음	평년(19~53mm)보다 많겠음

■ 3개월 기상전망

- 4월에 강수량 평년보다 많겠고, 5~6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음.
 - (4월)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큰 가운데 상순·하순에는 다소 쌀쌀하겠으나, 중순에는 기온이 높겠음. 전체적인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음.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5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하겠으나, 동해안 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흐린 날이 많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6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으나, 발달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3개월 기상전망 요약

구분	기온	강수량
4월	평년(11~14°C)보다 낮겠음	평년(58~162mm)보다 많겠음
5월	평년(16~19°C)과 비슷하겠음	평년(70~190mm)과 비슷하겠음
6월	평년(19~23°C)과 비슷하겠음	평년(106~268mm)과 비슷하겠음

〈 참고 〉 월별 기후 평년(1981~2010년)값

기후 요소	4월	5월	6월
평균기온(°C)	12.2	17.2	21.2
평균 최고기온(°C)	18.6	23.3	26.5
평균 최저기온(°C)	6	11.5	16.7
평균 강수량(mm)	78.5	101.7	158.6

※ 자료출처 : 기상청(2012년 3월 23일 발표)

2. 4월 재난발생현황 분석

■ 자연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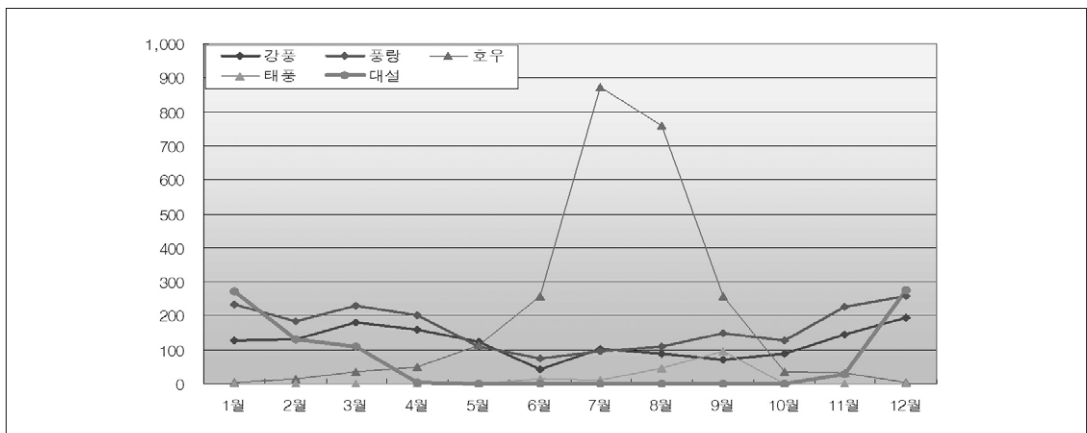
자연재난 분석

4월은 강풍·풍랑으로 인한 피해가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3월에 이어 황사가 자주 관측되는 시기임.

기상상황 분석

- 최근 5년('07~'11년)간 연중 기상특보 발표 추이를 살펴보면,
 - 강풍·풍랑특보 횟수는 11월부터 5월까지 많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 ※ 강풍 특보 : 12월/196회, 3월/180회, 4월/160회, 11월/146회, 2월/132회
 - ※ 풍랑 특보 : 12월/257회, 1월/232회, 3월/229회, 11월/226회, 4월/202회
 - 대설특보 횟수는 11월부터 급증하여 3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에 종료, 호우특보 횟수는 5월부터 9월까지 높은 수준

【 최근 5년('07 ~ '11년)간 기상특보 발표현황 - 기상청 】



정책정보

강풍·풍랑

- 최근 10년('01~'10년)간 총 133건의 자연재해로 684명의 인명피해와 17,044,064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데,
 - 이 중 4월에 총 7건의 자연재해로 17,274백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 최근 10년('01~'10년)간 총 6회예의 강풍·풍랑으로 14,551백만원의 피해가 있었고, '05년도부터는 매년 4월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 강 풍 : 5회, 재산피해 12,713백만원, 인명피해 없음
 - 풍 랑 : 1회, 재산피해 1,838백만원, 인명피해 없음
 - 호 우 : 1회, 재산피해 2,723백만원, 인명피해 없음

【 최근 10년('01~'10년)간 월별 자연재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월평균
건수	9	10	14	7	2	9	27	23	13	8	2	9	133	11
인명피해(명)	4	0	1	0	0	11	175	306	161	12	0	14	684	57
재산피해(억원)	6,939	1,549	7,701	173	9	2,500	28,565	68,357	47,838	1,055	49	5,705	170,440	14,203

【 최근 10년('01~'10년)간 4월중 자연재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기 간	원인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원)	주요 피해지역	비고
합 계	(7회)	0	17,274		
'04. 4.26~4.29	호우	0	2,723	강원, 경북	
'05. 4.19~4.19	강풍	0	957	전북, 전남	
'06. 4.17~4.21	강풍	0	10,079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청, 전남·북, 경남·북	
'08. 4. 9~4. 9	강풍	0	673	전남	
'08. 4.23~4.27	강풍	0	198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09. 4.20~4.22	강풍	0	806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10. 4.28~4.28	풍랑	0	1,838	강원, 충남, 경북, 경남	

⇒ 4월은 강풍·풍랑 대비 기상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비 특보단계부터 시설물 사전 보호조치 등 피해예방 대책 추진 필요

황 사

- 연간 황사일수를 보면 과거('73~'01년) 연평균 4.6일에서 최근10년('02~'11년) 연평균 8.3일(1.8배 높아짐)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 ※ 황사일수:전국 황사 관측지점에서 관측일수의 합을 전국 지점수(28)로 나눈 값

- 봄철(3~5월) 황사가 빈발하는 가운데 관측 이래 전체기간(73~11년) 분석결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 최근 10년(02~11년) 평균 분석결과 3월에 가장 많이 발생
 - (73~11년) 연평균 5.6일 발생 / 4월에 2.1일(37.5%), 3월에 1.5(26.8%)
 - (02~11년) 연평균 8.3일 발생 / 3월에 3.0(36.1%), 4월 2.1일(25.3%)
 - (73~01년) 연평균 4.6일 발생 / 4월에 2.2(47.8%), 3월 1.0일(21.7%)

구분	기간	관측일수(연평균)						비고
		합계	봄철			봄철 제외		
			소계	3월	4월		5월	
관측 이래	1973~2011	5.6	4.7	1.5	2.1	1.1	0.9	
구분	최근 10년	8.3	6.3	3	2.1	1.2	2	
	과거	1973~2001	4.6	4.2	1	2.2	1	0.4

황사피해 유형

- 가시도 저하로 시정장애를 초래하여 육상, 해상 및 항공부문 교통수단의 운행중단, 자연 및 사고 발생 위험 증가
-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자극성 결막염 등 안질, 심혈관계 질환 유발
- 비닐하우스 피복 작용으로 일사량이 감소하여 낙과율 증가와 수확량 감소 및 가축의 호흡기계 질환 등 야기
- 먼지바람으로 인한 도장작업 중단 등으로 인한 작업 소요일수 증가 및 이용객 감소로 인한 백화점, 할인점 등 매출 감소
- 레저, 스포츠 등 실외 서비스산업 매출감소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휴업 또는 단축수업 초래 및 레저, 스포츠 등 실외 서비스산업 매출 감소

⇒ 황사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및 유관기관간 관측정보 공유 등 범정부 차원의 피해예방 대책 추진 필요

중점추진사항

강풍·풍랑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황사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대응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함.

- 강풍·풍랑 대비,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시설물 피해 방지
 -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수산 증·양식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 세부 대응·대처계획 수립 시행
 - 풍랑특보 발표시 선박출항 금지 및 너울성 파도 대비 해안가 갯바위 낚시객 등 대피 철저를 통한 인명 피해 예방

정책정보

- 강풍특보시 공사장 크레인 운행정지·전도 방지를 위한 사전 보강 및 간판·조형물 등 옥외 시설물 결박 및 사전제거
- 특보 발효시 공중파 방송, SNS 등 활용 외출·외부활동 자제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행동매뉴얼 정비
- 황사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 기관별·부서별 황사 관련 상황관리 근무체계 구축
 - 각급 기관 홈페이지 등 이용「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게재 및 트위터·미투데이 등 SNS 활용 실시간 황사정보 대국민 홍보
 - 황사 발생시 실외 활동 자제, 농·축산 농가 가축 축사 대피 및 비닐하우스·온실 환기창 닫기 등 보호 조치
 - 황사특보 발효시 해당 지역 교육청 학교 휴업 등 적극 검토
 - 초대형 황사 발생시 재난사태 선포 등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

■ 인적재난

재난여건

4.11일 제19대 총선에 국민관심과 관계기관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춘객의 야외 활동 증가, 영농기 시작전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산불 위험 증가가 우려됨.

- 초·중·고교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가족단위 나들이객·상춘객 증가 및 각종 지역축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증가
 -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가족단위 주말 레저활동 인구 및 행락객 증가가 예상되며,
 - 4월중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적 개화가 이루어지고, 벚꽃 절정기도 4월중임에 따라 벚꽃명소에 인파 운집이 예상되며,
 - ※ 개화예상시기 : 남부 3.30~4.7, 중부 4.4~13, 경기·강원북부·산간 4.14~
 - 봄철맞이 각종 지역축제 및 야외행사에 따른 안전사고도 우려됨.
- 등산객 실화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
 - 등산객 실화로 인한 산불, 영농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태우기 등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 증가
 - 또한, 4월은 강한 바람이 잦아 작은 산불도 급속도로 번지며 진화 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겹칠 경우 대형 산불로 확대 우려

- 영농철이 시작되어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증가
 - 기계화 경작 보편화에 반해 농업인구 고령화 및 겨우내 사용하지 않던 농기계 사용으로 농기계 사고 위험 증가

인적재난 분석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 봄철맞이 지역축제 및 행락객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영농기 시작으로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임

4월중 인적재난 발생현황

- 최근 3년('08~'10년)간 총 850,075건의 인적재난이 발생하였고 4월 중에는 71,445건(8.4%)이 발생하였음.
- 재난유형별 연간 발생건수 대비 4월 건수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산불 27.1%, 유·도선사고 25%, 화재 9.7%, 폭발 8.8%의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08~'10년)간 4월 중 인적재난 발생현황 - 재난연감 】

구분	합계	화재	산불	붕괴	폭발	도로 교통	환경 오염	유도선	해난	기타
건수비율	8.40%	9.70%	27.10%	5.60%	8.80%	8.20%	6.80%	25%	7.70%	7.30%
총 건수	850,075	133,812	1,241	539	147	674,690	250	4	4,315	30,077
4월건수	71,445	13,487	336	30	13	55,037	17	1	331	2,193

⇒ 재난 유형별 4월 발생 비중은 산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도선 안전사고도 드물지만 4월에 발생한 점도 주목해야 함.

4월 발생 주요 인적재난 사례

- '08.04.19 경남 남해 220톤 유선 승객 해상 추락사고(사망 1명)
- '07.04.05 전남 고흥 연도교 건설공사장 붕괴사고(사망 5명, 부상 7명)
- '05.04.04 강원 양양 산불(산림 973ha, 건물 544동 등 230억, 이재민 420명)
- '02.04.15 경남 김해 에어차이나 추락사고(사망 129명, 부상 37명)
- '01.04.08 서울 미아동 LPG가스폭발 붕괴사고(부상 24, 건물 1·2층 22평 붕괴)
- '00.04.07 동해안(강릉·동해·삼척·고성) 산불(사망 2명, 부상 15명, 산림 23,138ha 등 1,000여 억원 피해)

산 불

- 최근 3년('08~'10년)간 총 1,241건의 산불로 산림 1,904ha가 소실되었고, 인명피해(사망13, 부상4), 재산피해 8,770백만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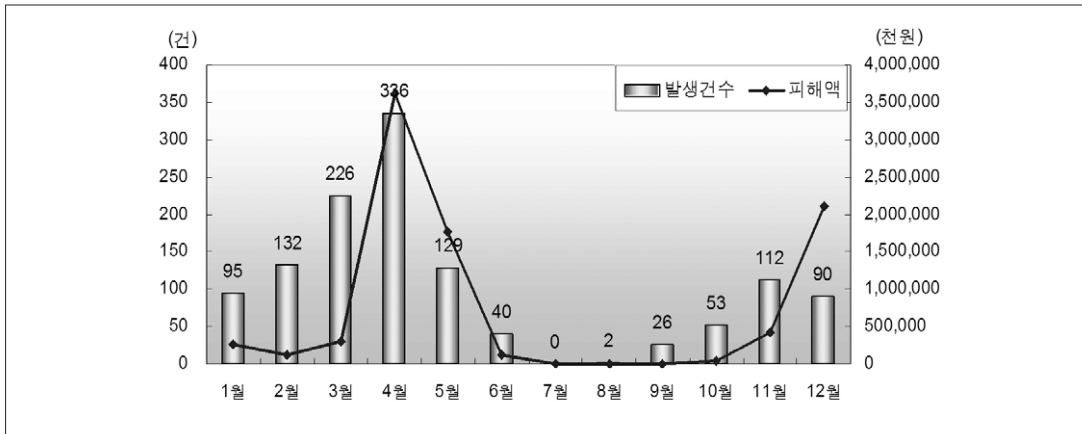
정책정보

- 이 중 발생건수로는 4월 336건(27.1%), 3월 226건(18.2%), 2월 132건(10.6%), 5월 129건(10.4%)의 순으로 4월에 가장 빈발하였고,
- 피해면적으로도 4월 1,276ha(67.0%), 5월 139ha(7.3%), 3월 118ha(6.2%)순으로 4월이 압도적으로 넓었던 것으로 분석
 - ※ 피해액(백만원) : 4월 3,624(41.3%), 12월 2,116(24.1%), 5월 1,759(20.0%) 순
- ⇒ 4월은 영농준비로 인한 소각행위와 등산 활동 등 야외활동 절정기로 바람까지 강하여 대형산불 위험 매우 높음

【 최근 3년('08~'10년)간 산불발생현황 - 산림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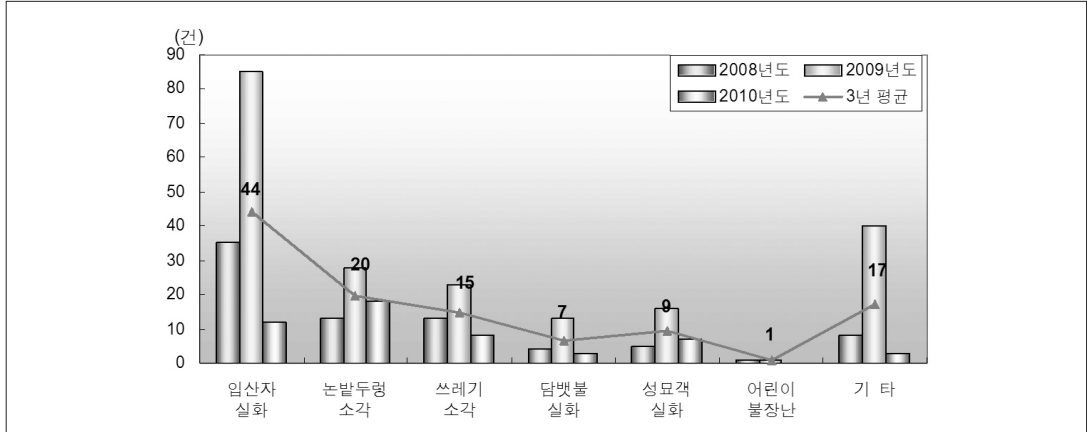
연도별	건 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억원)	임목피해 (ha)
		계	사망	부상		
계	1,241	17	13	4	8,770	1,904.30
2008년	389	6	6	0	436	226.9
2009년	570	9	5	4	3,883	1,380.60
2010년	282	2	2	0	4,451	296.8

【 최근 3년('08~'10년)간 산불 발생현황 - 산림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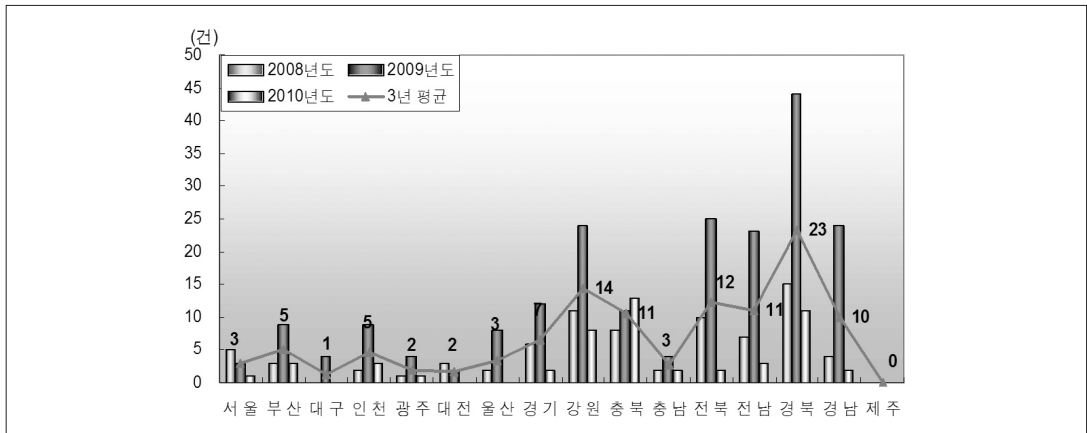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4월에 발생한 산불 336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 입산자실화가 132건(39.0%)으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고, 논밭두렁소각 59건(18%), 쓰레기소각 44건(13%)이 그 뒤를 이음
 - 지역별로는 경북 70건(20.8%), 강원 43건(12.8%), 전북 37건(11.0%), 전남 33건(9.8%), 경남 30건(8.9%) 순으로 발생

【 최근 3년('08~'10년)간 4월 중 원인별 산불발생현황 - 산림청 】



【 최근 3년('08~'10년)간 4월 중 지역별 산불발생현황 - 산림청 】



⇒ 입산객에 대한 화기소지 및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 홍보 강화 필요

과거 4월 주요 산불발생 사례

- '05.04.04 강원 양양 산불(산림973ha, 건물544동, 이재민 165세대 420명)
- '00.04.07 강원 동해안 산불(사망2, 부상15, 산림23,138ha 등 100,100백만원)
- '97.04.13 경남 거창 입산자 실화 산불(사망2, 산림3ha)
- '96.04.23 강원 고성 산불(산림3,762ha, 건물227동 등 22,717백만원)
- '96.04.23 경기 동두천 미2사단 소총사격으로 인한 산불(사망7, 부상1, 산림 4.9ha)

정책정보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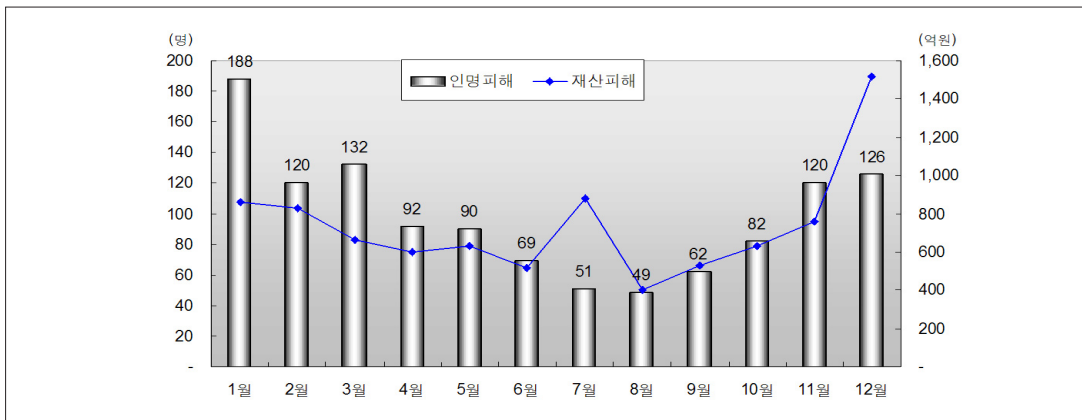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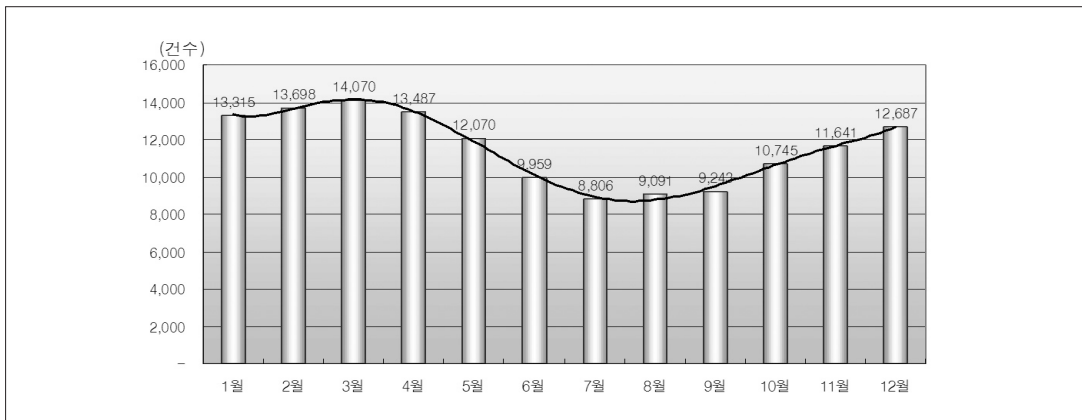
- 최근 3년('08~'10년)간 총 138,812건의 화재로 인명피해 7,049명(사망 1,181명, 부상 5,868명)과 재산 피해 8,820억원 발생

【 최근 3년('08~'10년)간 화재피해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연도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억원)	비고
		th계	사망	부상		
계	138,812	7,049	1,181	5,868	8,820	
2008년	49,631	2,716	468	2,248	3,747	
2009년	47,318	2,441	409	2,032	2,476	
2010년	41,863	1,892	304	1,588	2,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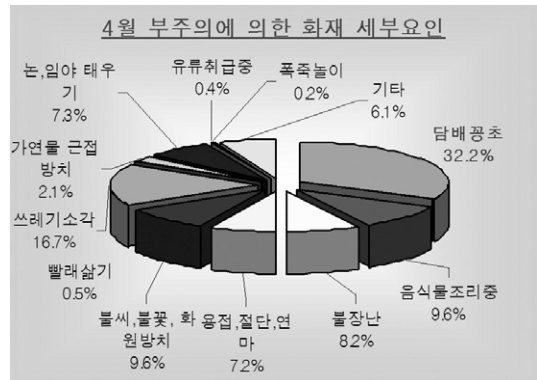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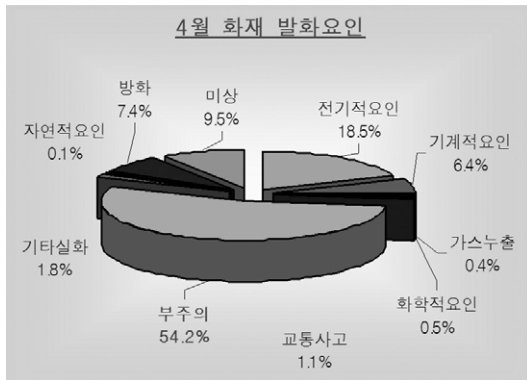
- 월별로는 3월 14,070건(10.1%), 2월 13,698건(9.9%), 4월 13,487건(9.7%), 1월 13,315건(9.6%) 순으로 발생하여 1월부터 4월까지가 가장 많이 발생

【 최근 3년('08~'10년) 월별 화재발생 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 최근 3년('08~'10년)간 4월에 발생한 13,487건의 화재로 인명 92명(7.8%), 재산 666억원(7.6%)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 발화요인은 부주의가 7,307건(54.2%)으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2,496건(18.5%), 기계적 요인 862건(6.4%) 순으로 발생하였음.
 - 부주의에 의한 화재 7,307건의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담배꽂초가 2,352건(32.2%), 쓰레기소각 1,217건(16.7%), 음식물 조리 705건(9.6%), 불씨·불꽃·화원방치 704건(9.6%), 불장난 602건(8.2%), 논·임야 태우기 531건(7.3%) 순으로 나타나 담배꽂초·쓰레기 소각에 의한 실화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3년('08~'10년)간 4월 요인별 화재발생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4월은 담배꽂초 및 쓰레기 소각 등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예방 집중 홍보 필요

4월 발생 주요 화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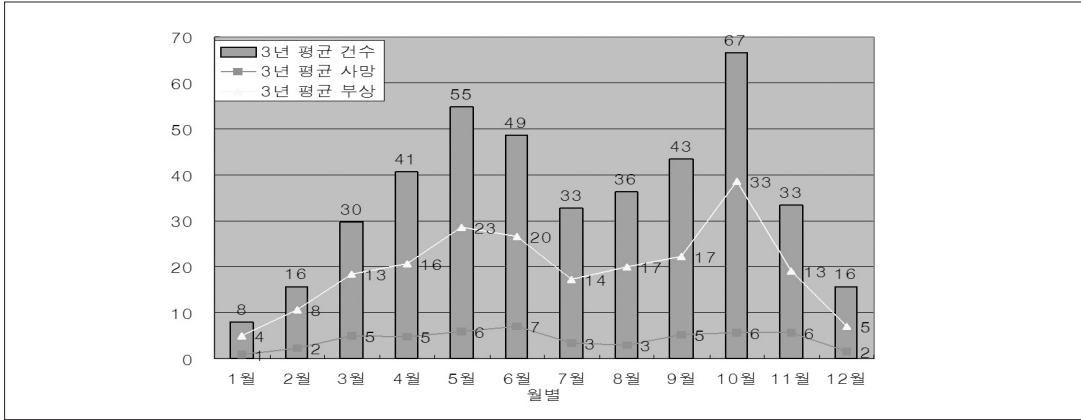
- '01.04.08 서울 강북구 미아동 LP가스 폭발·붕괴(부상 24, 건물 1~2층 일부 붕괴)
- '95.04.28 대구 달서구 도시가스 폭발(사망 101, 부상 202, 재산피해 4,718백만원)
- '93.04.19 충청남도 논산시 정신병원 화재(사망 35, 부상 1)

농기계 안전사고

-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추이를 재난관리정보 DB센터(소방활동정보)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는 봄철에 증가하여 겨울 전까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정책정보

【 최근 3년('09~'11년)간 월별 농기계안전사고 발생현황 - 재난관리정보 DB센터】



⇒ 4월 영농준비를 위해 겨울 동안 사용하지 않던 농기계 이용증가에 따라 정비불량·조작미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 예상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농기계작업사고 실태 조사결과

※ '11.7~10월 기간 전국 300개 마을(11개 시·도 54개 시군 150읍면) 표본조사 실시

- 기종별 사고발생 분포(%)

경운기	트랙터	예취기	SS기	이앙기	기타	계
66.6	13.1	14.3	1.2	1.2	3.6	100

- 농기계작업사고 발생원인(%)

부주의	운전미숙	피로·수면부족	안전장비 미흡	음주	복장불량	기타	계
46.9	23.8	17	6.9	2.3	0.8	2.3	100

※ 사고발생 주요 유형은 전도(33.3%), 타격(20.2%), 추락(13.1%), 충돌(9.5%) 등

⇒ 농기계 사용전 안전점검 및 정비 철저, 운전자 안전교육·사고예방수칙 홍보 강화 필요

중점추진사항

- 논·밭두렁태우기·성묘객 실화 등에 대한 산불 방지대책
- 봄철 지역축제 참여객 및 꽃구경 행락객 증가에 따른 유도선·유원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 영농 준비철 농기계 사용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

- 봄철 산불 피해 방지대책 추진
 - 중앙·지역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중심으로 산불대비태세 강화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으로 입산자 실화 원천차단
 - 산불 감시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확립
 - 논·밭두렁태우기,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 차단을 위해 지자체·소방·산림청 합동 단속팀 구성·운영
 - TV, 라디오, 전광판 등 활용 예방홍보로 국민공감·참여확산 유도

- 지역축제, 행락객·유도선 이용객 증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 지자체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강화·축제 전 유관기관 합동 현장 안전점검 및 축제기간 중 현장상황실 설치 등
 - 전국 유명산, 국립공원 입구 및 안전사고 다발지역에서 '봄철 안전산행요령' 홍보 등 사고예방 계도 활동 강화
 - 유·도선 담당 공무원·사업자 등 안전교육 및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 행락철 유원시설 등 유키기구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 등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철저
 - 농기계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노후 농기계 무료정비 지원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 및 등화장치 부착상태 단속
 - 농기계별 이용 안전수칙 제작·배포 등

■ 소방활동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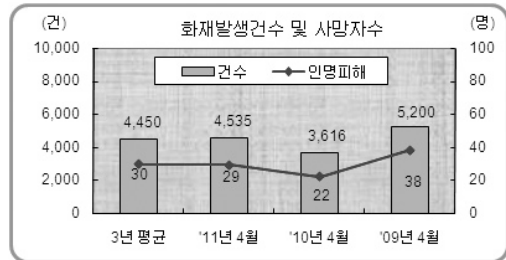
화재 분석

4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예방 활동에 중점

- '11년 4월에 발생한 화재(4,535건)는 최근 3년간('09~'11) 4월에 발생한 화재 평균건수(4,450건)에 비해 1.9%(85건) 높음
 - 재산피해는 동기간 대비 7.5% 증가(221억원 → 238억원)
 - 인명피해는 동기간 대비 2.3% 감소(30명 → 29명)

정책정보

구분	건수	인명피해(사망)	재산피해(억원)
3년평균	4,450	30	221
'11년04월	4,535	29	238
'10년04월	3,616	22	186
'09년04월	5,200	38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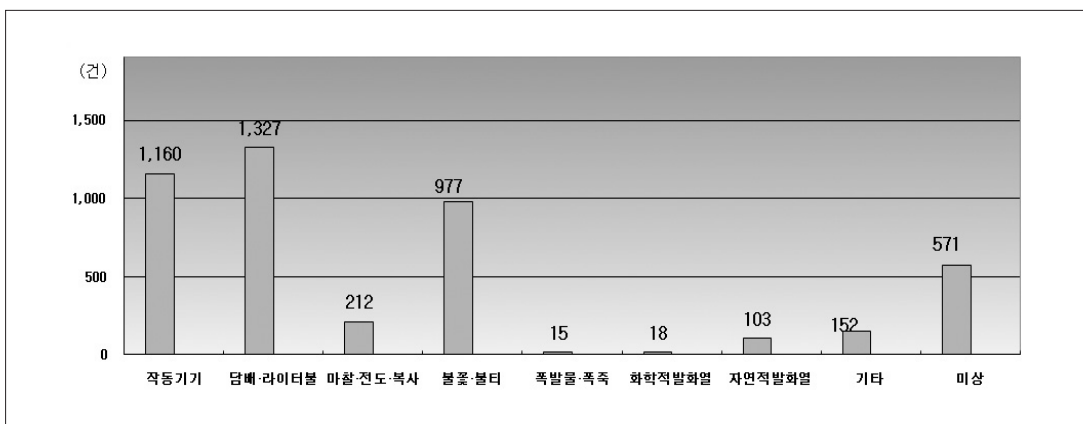


- 화재를 장소별로 분류하면 주거(24.1%), 임야(20.8%), 비주거(18.2%), 차량·철도(12.1%) 순으로 발생

구분	계	주거	비주거	차량 철도	위험물 가스제조소등	선박 항공기등	임야	기타
'11.4월(건)	4,535	1,091	823	549	2	10	942	1118
비율(%)	100%	24.06%	18.15%	12.11%	0.04%	0.22%	20.77%	2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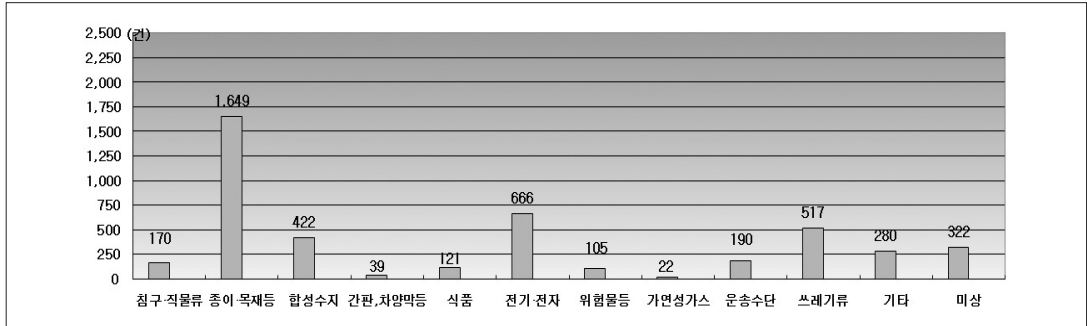
- 4월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총 2,173건 중 담배꽂초 부주의가 31.9%(1,023건)로 가장 많으며, 쓰레기 소각 21.1%(677건), 불씨·불꽃·화원방치 10.7%(343건), 논·임야 태우기 9.5%(306건), 불장난 5.9%(189건), 음식물 조리 5.6%(181건), 용접·절단·연마 5.5%(176건), 가연물 근접방치 2.7%(88건)순
- 4월 발화 열원별 화재발생 현황은 담배·라이터불 29.3%(1,327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작동기기 25.6%(1,160건), 불꽃·불티 21.5%(977건)순으로 나타남

【2011년 4월 화재발화열원(건)-국가화재정보시스템】



- 4월 최초착화물별 화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종이·목재 등이 36.4%(1,649건)로써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기·전자 14.7%(666건), 쓰레기류 11.4%(5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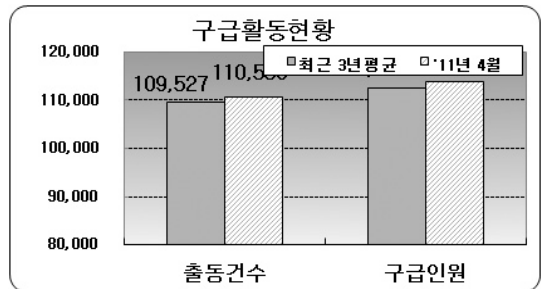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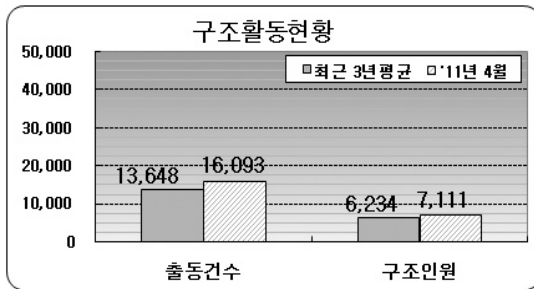
【2011년 4월 화재발생(최초착화물) 현황-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조·구급 통계 분석

본격적인 봄을 맞아 각종 행사·등산 및 농기구 관리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주의가 요구됨

- '11년 4월 구조 16,093건/7,111명, 구급 110,550건/113,758명 이송
- 최근 3년간('09~'11) 4월중 구조·구급 통계를 분석하면
 - '11년 4월중 구조 출동건수는 최근 3년 월평균(13,648건)보다 17.9%(2,445건)증가 하였으며,
 - 동기간 구급활동은 최근 3년 월평균(109,527건)보다 0.9% (1,023건) 증가 되었고,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1.1%(1,233명)증가함



- 4월 인명구조 활동비율은 화재와 교통사고 관련 구조가 29%를 차지

구분	계	화재	교통	기계	산악	수난	기타
'11.04(건)	16,093	2,663	1,983	206	411	115	10,715
비율(%)	100	16.55	12.32	1.28	2.55	0.71	66.59

- 구급활동은 질병과 교통사고 구급이 66%를 차지

구분	계	질병	교통사고	사고부상	기타
'11.04(환자)	113,758	60,045	14,695	27,340	11,678
비율(%)	100	52.78	12.92	24.03	10.27

방재정보광장

정책정보

1개월(4월 상순~하순) · 3개월 전망(4월~6월)



신진호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jshin0@korea.kr

- 4월까지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음 -

(4월) 기온의 변화가 큰 가운데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겠고 비가 자주 오겠음.

(5월) 맑고 건조하겠으나 동해안 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흐린 날이 많겠음.

(6월) 맑은 날이 많겠으나 발달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 3개월(4월~6월) 전망 요약 】

월	평균 기온	강수량
4월	평년(11~14°C)보다 낮겠음	평년(58~162mm)보다 많겠음
5월	평년(16~19°C)과 비슷하겠음	평년(70~190mm)과 비슷하겠음
6월	평년(19~23°C)과 비슷하겠음	평년(106~268mm)과 비슷하겠음

【 1개월(4월 상순~하순) 전망 요약 】

순	평균 기온	강수량
4월 상순	평년(9~12°C)보다 낮겠음	평년(13~50mm)과 비슷하겠음
4월 중순	평년(11~14°C)보다 높겠음	평년(19~59mm)보다 많겠음
4월 하순	평년(13~16°C)보다 낮겠음	평년(19~53mm)보다 많겠음

1. 1개월 · 3개월 날씨 전망

•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온도) 약한 저수온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해수면 온도 편차 : 2월 -0.7°C, 3월 셋째 주(3월 11~17일) -0.5°C

• (4월)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의 변화가 큰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일교차가 크겠음.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아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기도 하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높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하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쌀쌀하고 많은 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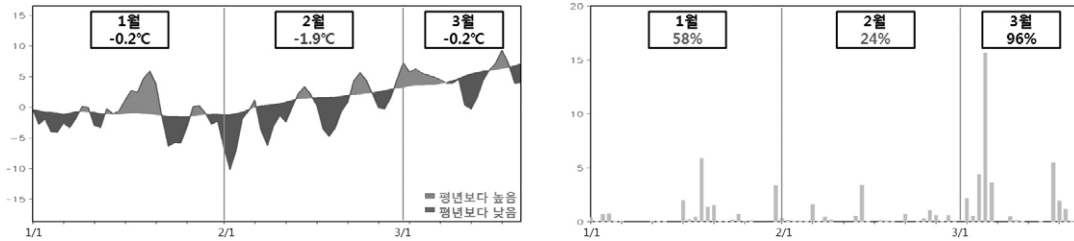
내릴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5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하겠으나 동해안 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흐린 날이 많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6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으나 발달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2. 최근 날씨 동향

- **(1월)** 상순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으며, 중순에는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어 기온이 소폭 상승하였음. 하순에 다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나 월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0.2°C). 1일과 3일에는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지역에 눈이 내렸으며, 4일에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안 지방과 제주도에 눈이 내렸음. 16일에는 동풍기류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렸으며, 17~18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렸음. 하순 전반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안 지방과 동해안 지방에 눈이 내렸으며, 31일에는 발해만에서 접근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경상남북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렸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평년대비 58%).
- **(2월)** 상순과 중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웠으며, 중순 초반과 하순 전반에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쌀쌀해져 월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았음(평년대비 -1.9°C).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2일에 전남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으며, 6일과 13~14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음. 17~18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제주도와 전남 해안지방에 눈이 내렸음. 하순 전반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으며, 25~26일에는 북서쪽에서 확장한 대륙고기압과 동풍기류의 영향으로 내륙지역과 동해안 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렸음. 28~29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렸음. 비가 자주 내렸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평년대비 24%).
- **(3월 1~20)** 대륙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의 변화가 컸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0.2°C). 2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으며, 3일에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기류에 의해 동해안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렸음. 4~6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9일에는 동풍기류의 영향으로 강원영동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 눈 또는 비가 내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 16~17일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온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으며, 18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96%).

정책정보



최근 3개월 평균 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 (2012.01.01~03.20)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 (4월~6월)

• 평균 기압계

- (4월)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변화에 따라 기온 변동이 큼.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이나 상층의 한기 유입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기도 함.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고온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남서쪽에서 접근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 일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함.
- (5월)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교대로 받음.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지역에 따라 일시적인 고온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동해안 지방은 찬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북동기류가 유입되어 저온현상이 지속되고 중서부 지방은 편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기도 함. 남쪽에서 발달한 저기압 또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함.
- (6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으며,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음. 하순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됨. 동서고압대 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으며,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저온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 바람

- 남서~남동풍이 우세함.

• 황사일수

- 3.3일 정도가 관측됨.

• 우리나라의 평균기온과 강수량

- 평균 기온 및 강수량 : 17.0°C, 370.3mm

※ <참조>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4월	5월	6월
평균기온(°C)	12.2	17.4	21.6
평균 최고기온(°C)	18.4	23.3	26.9
평균 최저기온(°C)	6.2	11.9	17
평균 강수량(mm)	94.1	122.2	153.9
강수일수(일)	8.6	9.5	9.8
서리 일수*(일)	0.8	0.1	0
황사 일수*(일)	2.1	1.2	0

* 서리 일수는 19개 지점 평균임.

* 황사 일수는 28개 지점 평균임(2011년 1~3월 27개 지점(충주 제외), 4월 이후 26개 지점(추풍령 제외)임).

* 서리와 황사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45개 지점 평균임.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4월 ~ 6월)

• 저온

- (2011년 4월) 북쪽 찬 공기의 지속적 유입과 잦은 비로 기온이 낮았음. 저온으로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고, 봄꽃의 개화시기가 늦어졌음.
- (2010년 5월 하순~6월 상순) 5월 하순에는 발달한 호호츠크해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저온현상이 나타났음. 6월 1~2일에는 상층 한기와 복사냉각으로 최저기온 최저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으며, 대관령에서는 아침최저기온이 -1.7℃를 기록하며 얼음이 관측되었음. 동해 연안의 수온이 낮아져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고랭지채소의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 (2010년 4월) 잦은 비와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았음. 농작물의 생육이 지연되고 수량과 상품성이 저하되었음.
- (2008년 5월 중순) 이동성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는 가운데, 상층의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기온이 낮았음. 저온현상과 서리로 인해 농작물의 냉해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4월 중순) 지속적인 상층 한기의 유입으로 기온이 낮았으며, 19~20일에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눈이 내리기도 하였음.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고, 꿀벌이 동사하여 꿀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 고온

- (2009년 5월 상순)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 기온이 높았으며, 특히 9일에는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어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3~34℃까지 올라갔음. 모기가 대량 번식되어 극성을 부렸음.
- (2005년 6월 하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의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남부와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났으며, 동해안에서는 열대야도 발생하였음. 냉방기 사

정책정보

용이 늘어나면서 정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2005년 4월 하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과 따뜻한 남서류의 유입으로 동해안 지방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4℃까지 상승하였음.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3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음.
- (2004년 4월 중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랐으며, 18일에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25~30℃까지 상승하였고, 큰 일교차로 감기환자가 급증하였음.
- (2002년 6월 상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5~7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까지 상승하였고, 내륙에서는 35℃이상 상승하기도 하였음. 무더위 속에서 월드컵 경기가 치러져 승부의 변수로 작용하기도 하였음.
- (2002년 4월 상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았고 고온현상이 자주 나타났음. 봄꽃의 개화가 빨라져 봄꽃 축제 일정을 앞당기거나 취소하였음.

• 건조 및 가뭄

- (2009년 4월 상순)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전국 평균 강수량 0.1mm를 기록하였음.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었으며 산불 발생이 증가하였음.
- (2007년 4월 상순)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음. 기압골과 저기압이 통과하며 강수현상이 있었으나, 강수량이 매우 적었음. 댐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하였고, 산불 등 화재발생이 증가하였음.
- (2005년 5월 하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고, 우리나라 남쪽에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남쪽으로부터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어 강수량이 매우 적었음. 산간지역에서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었음.

• 많은 비

- (2010년 5월 18일) 기압골이 통과하는 가운데 남쪽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일강수량(mm) : 보성군 189.5, 창원 121.0, 남해 104.0, 진주 100.0 등)가 내렸음.
- (2003년 6월 18~19일) 태풍 '소텔로'의 영향으로 제주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누적 강수량(mm) : 서귀포 259.0, 거제 211.5, 포항 150.5 등)가 내려 10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3년 5월 29~30일) 태풍 '린파'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누적 강수량(mm) : 진도 214.0, 제주 179.0, 부산 161.5 등)가 내렸음.

• 황사

※ 농도는 시간평균 최고농도이며, 단위는 $\mu\text{g}/\text{m}^3$

- (2011년 5월 1~4일) 전국적으로 매우 짙은 황사(농도 : 흑산도 1025, 고산 731 등)가 관측되었음. 공기청정기의 판매가 증가하였음.
- (2008년 5월 29~31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황사(농도 : 29일 백령도 967, 30일 서울 관악산 1059, 31일 부산 구덕산 501 등)가 관측되었으며, 기압계의 흐름이 느려 황사가 머무는 기간이 길어져 전국에서 황사가 관측되었음.

- (2007년 5월 8~9일) 우리나라 전역에서 매우 짙은 황사(농도 : 8일 백령도 985, 대관령 641, 서울 관악산 308 등)가 관측되었음.
- (2007년 3월 31일~4월 2일) 3일간 지속적으로 매우 짙은 황사(농도 : 3월 31일 백령도 1283, 4월 1일 대구 2019, 대관령 1911, 부산 구덕산 1632, 서울 관악산 1233 등)가 관측되었음.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고, 초등학교에서 휴교하였음.
- (2006년 4월 7~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황사(농도 : 8일 백령도 2371, 서울 관악산 2311, 천안 1900, 9일 강화 2034등)가 관측되었음.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휴교하였음.
- (2002년 4월 7~11일) 전국적으로 매우 짙은 황사(환경부, 농도 : 8일 대전 1607, 대구 1552, 서울 1464 등)가 관측되었음. 호흡기계통 환자가 증가하였고, 수요증가로 삼겹살 가격이 상승하였음.

- ※ 매우 짙은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농도가 $800\mu\text{g}/\text{m}^3$ 이상일 때
- ※ 짙은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농도가 $400\sim 800\mu\text{g}/\text{m}^3$ 미만일 때
- ※ 옅은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농도가 $400\mu\text{g}/\text{m}^3$ 미만일 때



정
책
정
보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SKX, Safe Korea Exercise)

■ 훈련개요

- 훈련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재난대비훈련),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훈련)
- 훈련기간 : 2012. 4.25(수)~4.27(금), 3일간
- 훈련참여 : 402개 기관, 단체 (중앙 22, 지자체 244, 공공기관 단체 136)
- 훈련내용 : 풍수해, 지진, 화재 등 재난대응 종합훈련
- 훈련방법 : 토의형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
- 훈련주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방방재청

■ 훈련 여건

- 대규모 재난대비 범국가적 통합 대응체계 점검
 - 극한 기상, 원전사고, 국가기반체계 위기 등
- 국민 훈련 참여를 통한 재난대응 능력 향상
 - 지진 지진해일 대피, 심폐소생술 체험 등

■ 훈련 목표

2012년 훈련 목표

- 국가기반체계 위기 극한기상 대응역량 강화
-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재난대응 능력 향상

행정기관

→ 임무와 역할 숙지



국 민

→ 재난대응 방법
실제 체험

훈련 중점

- 국가기반체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국제행사 안전을 위한 중앙단위 현장훈련 실시
- 심폐소생술 중점 체험 · 국민대피훈련 홍보 강화
- 집중호우 · 산사태 등 극한기상 대응훈련
- 중앙과 지방 훈련의 연계 추진
- 연중 훈련 실시를 통한 지속적인 대응역량 강화

■ 훈련 유형

- 훈련 도상훈련 : 16개소 (시도별 1개소)
 - 유관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고 협력방안을 논의
 - 대규모 재난 설정, 중앙과 지방 훈련의 3단계 통합 연계 (시군구→시도→중앙)
- 실제훈련
 - 국민대피훈련, 영광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4.26)
 - 2012 여수세계박람회 테러대응훈련 (4.27)
- 자체도상훈련 및 자체점검회의
 - 자체도상훈련 : 통합도상훈련 실시 이외 중앙부처 및 시군구
 - 자체점검회의 : 도상훈련 미참여 소속 유관기관

■ 중점추진사항

국가기반체계 위기대응	대규모 정전 대비 훈련 실시
	•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부처간 공조체계 점검
중앙단위 현장훈련	2012여수세계박람회 안전대책 점검
	• 테러 대응 및 해양오염 방제훈련 실시
심폐소생술 체험 국민 대피 훈련 홍보 강화	훈련기간 중 심폐소생술 체험 중점 추진
	• SNS 활용 및 다문화 가정 · 외국인 홍보 확대
극한기상 대응	산사태 · 침수 대응훈련
	•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등 훈련 실시
연중 훈련	매월 인적재난 주제 선정, 연중 훈련 실시
	•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도상훈련 실시

정책정보

■ **중점추진사항**

1일차(4.25) : 풍수해 대응훈련 · 국가안전대책 점검

■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15:00)**

- 훈련계획 보고, 여름철 재난관리대책 점검

■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등 통합 도상훈련(6개소)**

- 산사태(노원구 · 서울시 · 소방방재청), 침수(성남시 · 경기도 · 소방방재청 / 공주시 · 충남도 · 소방방재청 / 정주시 · 전북도 · 소방방재청 / 상주시 · 경북도 · 소방방재청 / 하동군 · 경남도 · 소방방재청)

2일차(4.26) : 지진 · 지진해일에 따른 국가 위기 대응훈련

■ **재난경보 발령(14:00~14:20)에 따른 전국민 지진대피 실제훈련**

- 동남해 연안 지진해일 대피훈련(5개 시도 26개 시군구)
- 전국 학생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대규모 정전 대비 절전훈련

■ **지진 · 지진해일에 따른 복합 위기대응 통합 도상훈련(3개소)**

- 영광 원전 방사능 누출 및 대규모 정전(영광군 · 전남도 · 원자력안전위원회 · 지식경제부 · 행정안전부 · 소방방재청)
• 영광 원전 실제훈련 실시
- 정유공장 대규모 폭발(울주군 울산시 · 소방방재청)
- 대규모 지진해일(제주시 · 제주도 · 소방방재청)

3일차(4.27) : 국제행사 안전확보 · 인적재난 대응훈련

■ **국제행사 안전확보 훈련(2개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 안전점검 중앙단위 현장훈련
• 국토해양부 · 조직위원회,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전남도 · 여수시 통합
- 2018평창동계올림픽 테러대응 도상훈련(평창군 · 강원도 · 경찰청)

■ **인적재난 대응 통합 도상훈련(6개소)**

- 화학공장 화재에 의한 금강 상류 오염(청주시 · 충북도 · 환경부)
- 지하철화재(금정구 · 부산시 · 국토해양부 / 광진구 · 광주시 · 국토해양부), 경인아라뱃길 수난사고(서구 · 인천시 · 국토해양부), 다중시설 대형화재(동구 · 대구시 · 소방방재청 / 동구 · 대전시 · 소방방재청)

2012년 풍수해보험사업 약정 체결

소방방재청은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보험 3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와 2012년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 체결 행사는 풍수해보험사업의 전국 시행 5주년을 맞아 소방방재청과 보험 3사가 풍수해보험 사업의 새로운 도약과 대국민 홍보를 통한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편, 2일부터 풍수해보험은 주택보상금액의 확대 (60만 원 /m² →

90~100만원/m²),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 대폭 상향(12~32만원 → 120만원), 보험요율 인하(주택: 평균 22.6%, 온실: 평균 12.5%) 등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되고, 국민의 부담은 덜도록 개선됐다.

이기환 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보험 3사와 협력하여 풍수해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하면서,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관계자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가까운 시·군·구청(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전화번호 : 02-2100-5103~6)에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재해영향분석과 행정사무관 김해(02-2100-5250)



소방방재청「안전홍보대사」로 산악인 엄홍길씨, KBS 기상캐스터 장주희씨 위촉

정책
정보

산악인 엄홍길씨와 KBS 기상캐스터 장주희씨가
소방방재청「안전홍보대사」로 5일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풍수해보험가입, 생명보호!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119 응급의료 지원서비스 등의 정책추진 과정 중 각종 공익광고, 홍보간행물, 온라인 홍보, 이벤트 행사 등에서 홍보대사로 나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계획이다.

이기환 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이 일상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많은 정책개발과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이 적극적인 홍보로 소방방재청의 미션과 비전인 “안전한국 실현을 위한 강한 소방방재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엄홍길 홍보대사는 “소방방재청 안전홍보대사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홍보와 자원봉사 등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난피해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안전홍보대사』에 위촉된 엄홍길씨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6좌 완등’의 신화를 이룩한 우리나라 대표 산악인으로서, 2008년에 엄홍길휴먼재단을 설립하여 네팔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 및 의료지원사업과 국내·외 청소년 교육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휴머니즘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장주희씨는 2010년 KBS 보도국에 입문해 “KBS1 7시 뉴스”를 거쳐 현재는 “KBS2 굿모닝 대한민국”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뛰어난 미모와 차분한 정보전달력을 인정받아 촉망받는 기상캐스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문의 : 대변인실 행정사무관 강선무(02-2100-5142)